

2021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 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자료>의 예를 활용하여 쓰시오. [2점]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가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사름, 거름’에서 보듯이 명사 파생 접미사는 ‘-음/음’이었고, ‘사름, 거름’에서 보듯이 명사형 어미는 ‘-음/음’이었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 ‘-음/음’이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가 된 것도 있다. 이 경우 형태만으로는 명사인지 용언의 활용형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이때는 문장에서의 기능 및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 명사인지 용언의 활용형인지를 구분한다.

<자 료>

(1) 고현 새는 도흔 우름 우더니 <월인석보 20:45b>
 (2) 가막가치 깃비 우루믄 凱歌(개가)하야 <두시언해 5:11a>

(1)에서 ‘우름’은 (㉠)는 사실을 통해서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에서 ‘우름’은 (㉡)는 사실을 통해서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 (나)를 읽고,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2점]

(가) 학생들의 고쳐쓰기 활동 분석 결과

학습 활동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 후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 보자.
분석 결과	○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인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고쳐쓰기 학습 활동의 결과, 단어나 문장 수준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고쳐쓰기 빈도가 가장 높았음.

(나) 교사 간 대화

교사 A: 얼마 전에 고쳐쓰기와 관련한 글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학습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쳐쓰기 일반 원리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서는 부족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고쳐쓰기 수업을 다시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 B: 그렇군요. 우선 학생들에게 고쳐쓰기의 목적이 단순히 글의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보 전달의 글을 쓸 때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용이하도록 글이 구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고쳐 쓰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사 A: 맞습니다. (㉠)을/를 고려하여 고쳐쓰기를 지도한다는 것은 쓰기 맥락 혹은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고쳐쓰기를 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것은 고쳐쓰기 과정뿐 아니라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사 B: 아시겠지만 그것은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 강조하는 (㉡)와/과 관련이 있습니다. 쓰기에 대한 (㉡) 수준이 높은 필자일수록 자신의 쓰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필자는 능숙한 필자입니다. 능숙한 필자는 수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쓰기 수행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3. (나)는 SQ3R의 방법으로 (가)를 읽은 후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읽기 방법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읽기 자료

사서(四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교는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유교 이론의 원천이 바로 사서이다. 그 속에는 중국인, 나아가 고전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인생, 자연과 사물을 음미하고 성찰했던 동아시아인들의 사유 양식, 철학·종교에 관한 지식 및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특히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네 권의 책이 하나의 완결된 유교 지식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주희는 사서를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로 읽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 그는 왜 대학을 처음에 두었을까?

대학은 유학의 학문적 목적과 정치의 근본을 밝힌 책으로, 유학의 기본 취지와 실천 강령을 가장 체계적으로 밝혀 빼어난 유교 입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을 짓기 위해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야 하는 것처럼, 대학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다양한 경전의 내용을 각각의 조목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다음에는 논어를 읽게 하였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이 담긴 어록이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유교의 이상인 대학의 도를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유교 이론의 구체적인 실천이 생생하게 담긴 자료집이다.

맹자가 세 번째가 된 것은, 맹자는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 확장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희는 대학을 읽고 학문적 지향점을 찾은 후에 논어, 맹자를 읽으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 중용을 읽으면 된다고 하였다. 중용은 인간과 사물의 근저에 있는 추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기에, 다른 경전을 먼저 읽고 이것을 맨 마지막에 읽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이 인간과 사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도록 한 것이라면, 중용은 그 이면을 성찰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 교사와 학생의 대화

교사: 지난 시간에는 ㉠ KWL 방법을 이용하여 글을 읽어 보았지요. 오늘은 ㉡ SQ3R 방법을 활용하여 ‘사서(四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글을 읽어 보았는데, 어땠어요? SQ3R 방법을 사용한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선생님, 저는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목이나 대강 살펴본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교사: 어떤 점들이 궁금했지요?

학생: 사서는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지? 이 순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점이 궁금했어요. 그런 다음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사: 글은 어떻게 읽었어요?

학생: 글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각 단락의 핵심어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글을 읽었어요.

교사: 글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생: 되새기기 활동을 수행하였어요. 글을 읽기 전에 만든 질문 말고 이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더 만들어 보았어요. [A]

교사: 그다음에는 무엇을 했나요?

학생: ㉢

교사: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지금까지 수행한 읽기 활동을 들어 보니 보완해야 할 활동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 볼까요?

<작성 방법>

- ㉠, ㉡의 공통점을 방법적 측면에서 2가지 제시할 것.
- [A]를 볼 때, 교사가 지도할 내용 1가지를 쓰고, ㉢에서 학생이 수행해야 할 활동 1가지를 제시할 것.

[4~5] (가), (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이고, (다)는 이와 관련한 교사들의 대화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 속에 파묻혀 앉아 깨금을 알뜰히 바수는 중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한데 합쳐서 몸에 함뱍 젖어 들어 전신을 가지고 모르는 곁에 그것을 느낄 뿐이다. 산과 몸이 빈틈없이 한데 열린 것이다. 눈에는 어느 곁인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냄새가 배었다. 바심할 때의 짙북데기보다도 부드러운 나뭇잎 — 여러 자 깊이로 쌓이고 쌓인 깨금잎 가랑잎 떡갈잎의 부드러운 보료 —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몸뚱아리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총중의 한 대의 나무다. 두 발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다. 살을 베이면 피 대신에 나무진이 흐를 듯하다. 잠자코 섰는 나무들의 주고 받는 은근한 말을, 나뭇가지의 고갯짓하는 뜻을, 나뭇잎의 수군거리는 속심을, 총중의 한 포기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쏘일 때에 즐겨 하고 바람 불 때 농탕치고 날 흐릴 때 얼굴을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역력히 번역해 낼 수 있다. 몸은 한 포기의 나무다.

[중략 줄거리] ‘중실’은 머슴살이를 하던 중, 집주인인 김 영감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산에 들어와 산다.

거리의 살림은 전과 다름없이 어수선하고 지지부레하였다. 더 나아진 것도 없으려니와 못해진 것도 없다.

술집 골방에서 왁자지껄하고 싸우는 것도 전과 다름없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런 거리 살림살이가 도무지 마음을 당기지 않는 것이다. 앙상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다지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무슨 까닭으로 산이 이렇게도 그리울까 편벽된 마음을 의심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별로 이치도 없었다. 덮어놓고 양지쪽이 좋고 자작나무가 눈에 들고 떡갈잎이 마음을 끄는 것이다. 평생 산에서 살도록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김 영감의 그 후의 소식은 물어낼 필요도 없었으나 거리에서 만난 박 서방 입에서 우연히 한 구절 얻어 듣게 되었다.

병든 등 굽개 첩은 기어코 김 영감의 눈을 감춰 최 서기와 줄행랑을 놓았다. 종적을 수색 중이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라 한다.

사랑방에서 고시랑고시랑 잠을 못 이룰 육십 노인의 꼴이 측은하게 눈에 떠올랐다. 애매한 머슴을 내쫓았음을 뉘우치리라고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중실에게는 물론 다시 살려 들어갈 뜻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은 친절도 가지기 싫었다.

다만 거리의 살림이라는 것이 더한층 어수선하게 여겨질 뿐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저녁 길이 한결 개운하다.

- 이효석, 「산」 -

(나)

그날 할아버지는 장정 두 팔로 꼭 네 아름이라던 왕소나무 밑동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면서,

“이애야, 이 왕솔은 토정(土亭: 李之菌) 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지던 지팽이를 꽂아 놓셨는데 이냥 자란 게란다. 그쪽에 그 할아버지 말썽은, 요 지팽이 앞으로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 게여…… 그 말썽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큼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지두 모르는 것을……”

하던 말을 나는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 (중략) …

㉠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들었던 철로가에 서서, 그 술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靈物)의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枯死)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弔喪)만으로 비감에 젖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의 추레한 주재퓌에 한결 더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으로 빠져려 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얼핏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눈결에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넉넉한 열다섯 칸짜리 꽃패 집의 풍채는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적마다 온 마을의 종가(宗家)나 되는 양 한눈에 알겠던 집이 그렇게 변모할 수가 있을까 싶던 것이다.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버금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이제는 가로세로 들쭉날쭉, 풀값하는 난봉난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어질러 놓아, 겨우 초가 안채 용마루만이 그럴듯할 뿐이었으며, 좌우에서 하늘자락을 치켜들며 함석지붕 날개와 담장을 뒤덮었던 담쟁이덩굴, 사철 푸르게 발마당의 방풍림으로 늘어섰던 들충나무의 가지런한 맵시 따위는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런 동네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었자 무덤(墓)들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협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 이문구, 「일락서산」 -

(다)

교사 A: 선생님, 저는 「산」과 「일락서산」, 이 두 작품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존의 삶이랄까, 혹은 생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 같아요. 공동체의 항구적 존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 환경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꿔 ㉡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과 다른 생명 유기체 사이의 차이를 해체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 욕망을 버려야 하겠지요. 더불어 ㉠ 현대 물질 문명의 부정성이 야기한 생태 문제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 두 세계의 삶의 모습을 병치하여 특정 세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사 B: 그렇군요. 저는 두 작품 중에서도 장소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일락서산』이 흥미롭더군요. 보통은 공간과 장소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추상적 성격을 띠는 공간(space)에 가치를 부여하면 장소(place)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장소는 개인과 집단에게 정체성과 안정감을 부여하지만, 특정 요인들에 의해 그동안 맺고 있던 진정한 애착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장소 상실(placelessness)로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처음 방문한 관광지나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 ㉢ 새로 생긴 특정 공간을 대하면서 두려움이나 불쾌감 곧 외부성(outsiderness)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 장소 상실의 감정은 더욱 심화되죠. 한편, 오늘날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공간의 상품화 현상을 확대하죠. 자본이 추진하는 ㉣ 공간의 상품화는 가치가 부여된 기존의 장소를 추상적 공간으로 변형하고, 결과적으로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케 하는 것 같아요.

4. (가), (나)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 <작성 방법> —

- ㉠의 관점에서 [A]를, ㉡의 관점에서 [B]를 분석한 결과를 포함할 것.
- (다)의 교사 A가 말한 ㉢이 (가)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밝히고, ㉣에 대한 '중실'의 감정을 각각 서술할 것.

5. (다)의 교사 B의 말을 참고하여, '장소'의 서사화 양상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 <작성 방법> —

- (나)의 '나'에게 외부성의 감정을 느끼게 한 ㉤을 찾아 쓰고, ㉤의 의미를 '장소 상실'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 (나)에서 ㉤을 확대한 구체적 요인을 찾아 쓰고, '고을'의 변화에 대한 '할아버지'의 인식을 서술할 것.

6. 다음을 읽고, <자료>에서 연결 어미의 제약을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선행절과 후행절이 이어진 것이므로 선·후행절의 주어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1) 영희가 밥을 먹고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2) 영희가 밥을 먹다가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1)에서 보듯이 후행절의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략된다(생략된 주어는 ∅로 표시). 그런데 (2)에서 보듯이 일부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제약이 있다.

연결 어미와 관련된 또 다른 제약은, 일부 연결 어미의 경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의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이다.

(3) 영희가 밥을 {먹고/먹었고}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4) 영희가 밥을 {먹자마자/*먹었자마자} 커피를 마셨다.

(3), (4)에서 보듯이,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도 '-고'와는 달리 '-자마자'는 '-었-'과 결합하지 못한다.

— <자 료> —

A. 영희가 전화를 받으려고 {㉠ 민수가/㉡ ∅} 밖으로 나갔다.
 B. 그날은 내가 일이 {㉢ 생겨서/㉣ 생겼어서} 참석을 못 했다.

— <작성 방법> —

- A에서 ㉠과 ㉡에 의해 만들어진 각 문장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쓰고, 적격성 판단에 적용한 연결 어미의 제약을 서술할 것.
- B에서 ㉢과 ㉣에 의해 만들어진 각 문장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쓰고, 적격성 판단에 적용한 연결 어미의 제약을 서술할 것.

7. 다음을 읽고, <자료>에서 높임법을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높임의 대상은 주체, 객체, 청자이고 높임의 방법에는 문법적 방법과 어휘적 방법이 있다. 문법적 방법은 조사 ‘께서’, ‘께’를 ‘이/가’, ‘에게’ 대신 사용하는 것,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이는 것, 그리고 청자 높임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휘적 방법은 ‘계시다, 여쭙다’ 등의 특수 어휘를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주체 높임법 중 서술어에 ‘-(으)시-’를 붙이는 방법은 ㉠ 직접 높임법과 ㉡ 간접 높임법으로 나뉜다.

<자 료>

- A. 선생님, 그분은 모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B. ㉠ 선생님이 멋지시다.
 ㉡ *자동차가 멋지시다.
 ㉢ 선생님이 자동차가 멋지시다.

<작성 방법>

- A에 나타난 2가지 ‘높임의 대상’과 각각에 적용된 ‘높임의 방법’을 서술할 것.
- ㉠과 ㉡에 대해 B의 ㉠, ㉡, ㉢ 모두를 이용하여 서술할 것.

8. 다음을 읽고, (가)와 (나)의 서사 전개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세월이 여류하여 십오 세의 당하여는, 용모 화려하고 효행이 탁월하여 이러한 소문이 원근의 낭자하니, 뉘 아니 칭찬하리오? 일일은 심청이 저녁밥을 빌러 가서 일세가 저무도록 종무소식 감감하니 심봉사 홀로 앉아 기다릴 제, 배는 고파 등의 붙고 방은 추위 턱이 덜덜 떨리는데, 원사의 쇠북 소리 은은히 들리거늘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로

“우리 심청이는 무슨 일의 골몰하여 날 저문 줄 모르난고. 풍설의 막혀 그러한가, 강포한 사람을 만나 봉욕을 당한가?”

- 작자 미상, 『심청전』(경판본) -

(나)

세월이 여류하야 십오 세의 당하더니, 얼굴이 추월하고 효행이 탁월하고 동정이 안온하야 인사가 비범하니 천생여질이라, 가르쳐 행할소냐? 여중의 군자요, 새 중의 봉황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의 자자하니, 일일은 월평 무릉춘 장승상 댁 시비 들어와 ㉠ 부인 명을 받아 심 소저를 청하거늘, 심청이 부친께 엿자오대,

“어른이 부르신즉 시비 함께 가 다녀오겠나이다. 만일 가서 더디어도 잡수시던 남은 진지 반찬 시저 상을 보와 탁자 위의 두었으니, 시장하시거든 잡수시요. 부디 나 오기를 기다려 조심하옵소서.”

하고 시비를 따라갈 제

… (중략) …

심 소저 일어 재배하고 엿자오대,

“명도 기구하여 낳은 지 초칠일 안의 모친이 불행하여 세상 버리시매, 눈 어둔 나의 부친 동냥젓 얻어 먹여 겨우 살았으니, 모친 얼굴도 모르매 궁천지통 끊길 날이 없삽기로, 나의 부모 생각하야 남의 부모도 공경터니, 오늘 승상부인께옵서 권한 뜻이 미천한 줄 헤지 않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모친을 다시 뵈은 듯 황송감격하와 마음을 둘 곳이 전혀 없어, 부인의 말씀을 좇자 하면 몸은 영귀하오나, 안혼하신 우리 부친 조석 공양과 사철 의복 다투서 돌보리까? 구휼하신 은덕은 사람마다 있거니와 나에게 있어서는 남다른지라.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겸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 믿기를 아들 겸 믿사오니 내가 부친곳 아니시면 이제까지 자랐으며, 내가 만일 업게 되면 우리 부친 남은 해를 마칠 길이 없사오며, 오조의 사정 서로 의지하여 내 몸이 맞도록 길이 모시려 하옵니다.”

말을 마치매 눈물이 옥면의 젖는 거동은 춘풍세우가 도화의 맺혔다가 점점이 떨어지는 듯하니, 부인도 또한 긍측하여 등을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대,

“효녀로다 네 말이여, 응당 그러할 듯하다. 노혼한 나의 말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저런 날이 저물어지니 심청이 엿자오대,

“부인의 착하신 덕을 입어 종일토록 모셨으니, 연광이 만하기로 일역이 다하오니 급히 돌아가 부친의 기다리시던 마음을 위로코져 하나이다.”

부인이 말리지 못하야 마음의 연연이 여기서, 채단과 피륙이며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 함께 보낼 적의,

“네 부디 나를 잊지 말고 모녀간 의를 두면 노인의 다행이라.”

심청이 대답하되,

“부인의 장하신 뜻이 이같이 미쳤으니 가르치심을 받자오리다.”

절하여 하직하고 망연히 오더니라. 이때의 심봉사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제, 배 고파 등의 붙고 방은 추위 턱이 떨어지고, 잘 새는 날아들고 먼 데 절 쇠북 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의 골몰하여 날이 저문 줄 모르난고. 주인의게 잡히어 못 오난가, 저물게 오는 길의 동무의게 잠착한가?”

- 작자 미상, 『심청전』(완판본) -

<작성 방법>

- (가)와 (나)의 서술 방식상 특성을 비교하여 서술할 것.
- (나)의 인물 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분석할 때 ㉠의 역할을 쓰고, ㉠이 ‘심청’의 인물 형상화에 기여하는 바를 서술할 것.

9. (가)는 협상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행복시 ○○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대규모의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지역민이 주차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지만 주차장 예정 부지에 주거 중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 구청 측에서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구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받고 공영 주차장 건립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부지 주민 측에서는 구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거지 근처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구청 측: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공영 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측이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도 좋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 측: 이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아도 땅을 팔아야 하고 수십 년 살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역 주민 전체와 이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우리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청 측: 주민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 얼마나 애정이 깊으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부디 주차장 건립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측: 이 사안은 우리 측이 이 지역에 얼마나 애정이 깊은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측의 말을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가 우리 구청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바 맞지요?

구청 측: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측: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청 측에서 제시한 토지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안하셨던 토지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이주·정착비를 지급해 주시고, 공영 주차장 건물에 들어설 상가의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부지 주민들에게 배분해 주신다면 우리 측에서도 공영 주차장 건립에 동의하겠습니다.

구청 측: 이주·정착비에 대한 제안은 저희 측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물 내 상가 운영 수익금 배분에 대한 것은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서 현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나)

협상은 자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대개 사람들은 협상에서 단일 의제를 제시하고 상대의 답변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하여 양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단일 의제에 대하여 상대가 양보하게 하는 것은 교섭 영역이 좁아 파국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일 의제 협상에서는 양측이 쉽게 타협할 경우 최선책이 되는 윈-윈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작성 방법>

- [A]에서 구청 측의 협상 방법에 나타난 문제점을 쓰고, 그 문제점의 원인을 (나)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B]에서 주민 측이 사용한 협상 전략을 쓰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보적 측면에서 서술할 것.

10. 다음을 읽고, <자료>를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동화(同化)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닮는 현상을 이른다. 두 음운이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화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거나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부분 동화이다.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을 동화주, 동화를 겪는 음운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규칙의 형식 ‘x → y / _z(또는 x → y / z_)’로 동화를 나타내면, x에 해당하는 음운이 피동화음이고, y에 해당하는 음운이 동화된 음, 조건 환경 z에 해당하는 음운이 동화주이다. 피동화음 x가 동화주 z에 의해 동화를 겪게 되면, 동화된 음 y는 동화주 z와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 중 적어도 하나는 같아진다. x가 y로 바뀌었지만, y와 z 간에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 어느 것도 같아진 것이 없다면, 그 음운 변동은 동화가 아니다.

<자 료>

- (1) 친구 → [칭구], 안기다 → [앙기다]
- (2) 길놀이 → [길로리], 돌나물 → [돌라물]

<작성 방법>

- (1)이 조음 위치 동화인 이유를 x, y, z에 해당하는 음운의 자음 체계에서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을 들어 설명할 것.
- (2)가 조음 위치 동화가 아닌 이유를 x, y, z에 해당하는 음운의 자음 체계에서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을 들어 설명할 것.

11. (가)~(다)는 교수·학습 상황이고 (라)는 학생의 학습 활동 결과이다. 학생의 학습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성취기준

○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나) 교수 내용의 요지

자연 친화적 삶의 형상화는 한국 문학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서, 조선 전기 사대부 문학에는 대표적으로 자연의 의미와 역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완상(玩賞)의 대상으로서 감흥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함.
- ㉡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공간으로서 연군의 정을 느끼게 함.
- ㉢ 도(道)의 구현체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 줌.
- ㉣ 학문의 공간으로서 수양의 환경을 형성함.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언지(言志)’ 6수와 ‘언학(言學)’ 6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조로서, ‘언지’에서는 주로 ㉠과 ㉡이, ‘언학’에서는 주로 ㉢과 ㉣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다) 학습 활동

※ 다음은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일부를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다. [A]~[D]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파악하여 ‘언지’와 ‘언학’으로 구분해 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어 보자.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희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A]

청산(靑山)은 엇제(何)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제(何)여 주야(晝夜)애 굿지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흐리라 [B]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C]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흔디
만권(萬卷) 생애(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흐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홀고 [D]

(라) 학습 활동 결과

구분	판단 결과와 이유
[A]	‘유란’과 ‘백운’을 보면서 감흥을 느끼는 가운데 임금으로 추정되는 ‘피미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 ㉠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B]	... ㉡
[C]	‘연하’와 ‘풍월’로 표상되는 자연을 완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태평성대를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로 ... ㉢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	자연과 어우러진 ‘천운대’와 ‘완락재’의 ‘소쇄’한 풍경을 보며 풍류를 즐기는 감흥이 나타난 것으로 ... ㉣ 보아, 언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방법>

-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
- ㉠, ㉢, ㉣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